



■ 대담 : 編輯者

**[문 1] 建築士가 社會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建物は 어느 創作物보다 규모가 크고 값이 비싸기 때문에 建築士業務의 社會性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建物は 곧 社會의 空間的 組織의 일부이기 때문에 建築士는 社會를 有形的인 면에서 창조한다고 하겠는데 이때에 「나」만을 아는 建築主 에게 「이웃」까지도 생각한 좋은 建物を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술에 취해 길에서 大聲放歌하고 있는 것과 다른 없는 自己陶醉型의 水準以下의 獨存的 建物は 阻止시킬 義務가 建築士에게는 있다고 봅니다.

한편 建築士는 建築主가 돈을 요령있게 잘 사용하도록 소위 financial feasibility를 예측해서 助言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점에서 社會經濟에 참여하게 되는 거지요.

**[문 2] 建築士의 自勵向上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建築의 이론이나 手段은 나날이 發展되어 가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獲得을 게을리해서는 안되겠죠. 그런데 建築士 개인의 힘이나 노력보다는 協會에서 建築士의 向上을 위한 사업을 보다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加급적 강습회, “세미나”등을 자주 열어서 새로운 技術精報를 알리는 것같은 것은 한 例겠지요.

옛날과 달라서 오늘날은 몹시 바쁘고 建築규모도 크고 내부구성도 복잡하기때문에 현대적으로 建築을 만들어내는 “현대적 솜씨”가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建築 설계 업무에는 浪漫性과 機械性이 겸비되어야겠다고 봅니다.

即 建築의 부드러운 면과 철저히 세밀한 면을 다같이 해석하여 디자인에 반영시켜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문 3] 建築士의 進性問題에 대해서—**

어려운 질문인데요. —

얼른 생각해서 社會的주체성과 作品上의 주체성이 생각됩니다.

建築업이 자유경쟁적인 제도아래 행하여지는 限, 社會적 주체성은 建築士 개개인의 處世와 實力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建築士 전체의 공동적 주체성을 위해 士協會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士協會의 주요한 義務이기도 하겠습니다.

作品上의 주체성은 이와는 반대로 個性있는—即 作家마다 달라야 하겠습니다. 요즈음은 너무나 비슷한 建물이(특히 주택의 경우까지)서는 것을 보게되는데 그야말로 주체성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문 4] 建築士들이 社會적 권위와 비중을 위해서 自省해야 할 점이 있다면…**

社會적 권위나 비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잘못은 어떻게 다음과 같이 실천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첫째로 위에 말한 것과 같이 좋은 作品을 더 많이 만들어 내어야 할 것이고 둘째로는 建築士 相互間의 道德律 함양을 해야할 것이고 셋째로 국가나 민족적 사업에 建築가로서 매담하게 進出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建築士의 數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秩序가 요망되는 것입니다. 좁은 땅에서이지만 義勇하게 일할 수 있는 “씨스팀”을 後代에 남겨주기 위한 실제적인 작업이 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문 5] 월간 “建築士” 편찬위원으로서 회지 발전을 위해…한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말씀드리는데 있지만 油印物이기 때문에 잘못된 곳이 없는 完全性을 반드시 期해야겠습니다. 永遠히 남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많은 後進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協會會員들에게는 물론 設計研究所 末席의 技士에게도 愛讀되는 매력적인 잡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